노조의향기 9기 7호 2017.6.8(목) 발행인 정규전

적극 결단 바람

7차 집단교섭, 진전된 안 당부

6월 8일(목) 14시 SJM안산공장에서 7차 집단교섭이 열렸다. 사용자측 8개사 14명, 조합측 10개사 44명의 교섭위원이 참가했다. 우창정기와 계열사인 서연전자노동조합 간부들도 참관했다. 서연전자노조는 금속연맹에서 산별전환 당시 금속노조로 오지 못했지만, 현장 분위기를 바꾸려 노력하고 있다.

어려울수록 같이 논의

SJM 엄기량 본부장은 "요즘 물량 급감으로 대단히 어렵다. 매년 하는 임금교섭이지만, 이런 점을 고려해 양보·협력하자"며 교섭을 시작했다. 정규전 지부장은 "제조업이 어려운 것 다 알고 있다. 그럼에도 재벌과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이 쌓여가는 것은 큰 문제다. 최근 신생노조가 많이 생기고 있다. 정세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살기 팍팍하다는 거다. 보수정권 때 금속노조가 타겟이 되어서 아직 투쟁 중인 장기투쟁사업장들도 많다. 경기지부에서도 하이디스지회가 국회 앞 농성을 시작했고, 시그네틱스분회도 세 번째 해고에 맞서 싸우고 있다. 어려운 때일수록 같이 논의해 원만하게 갔으면 한다. 적극적인 교섭으로 7월 말 휴가 전까지는 마무리하자"며 빠른 안 제시를 요구했다. 어렵다고 미루기보다 어려울수록 꺼내놓고 노사가 뜻을 모으자는 취지다.

적극 결단 요구

사용자측은 6차 교섭(1일 신한발브)에서 1차 제시안을 냈다. 임금은 모두 '추후제시', 공동요구안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안을 냈다. 지부는 "공민권 행사, 산재은폐 방지 등 공동요구안으로 제시된 내용보다 훨씬 상회하는 단협을 가진 사업장들이 대부분이다. 큰 문제 아니라면 적극 수용해달라"며 결단을 요구했다. 임금도 "금속노조 전체 상황이나 타 사업장 상황을 고려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언제까지 눈치만 볼 것인가? 여유 있는 사업장 먼저 제시하고 점진적으로 맞춰가자"고 했다. 올 해 집단교섭 공동요구안을 가볍게 제시한 만큼, 사측도 빠른 결단과 적극적인 안 제시로 휴가 전 마무리에 힘을 실어주실 바란다.

8차 교섭은 6월 15일(목) 우창정기에서 열린다. 시간은 사측 일정으로 간사 간에 조율하기로 했다.

현장순회로 에너지충전

교섭위원들은 신생 현대모비스화성지회의 조직상황과 교섭대표노조 확보 현황을 공유했다. 교섭을 마친 후엔 현장순회를 하며 SJM 조합원들을 만났다. 2012년 두 달 밤낮을 함께 투쟁한 낯익은 얼굴들과 반가운 인사를 나눴다. 처음 공장을 방문한 젊은 간부들은 구석구석 둘러보며 선배들에게 들은 투쟁과 승리의 장면들을 그려보았다. 비타민음료를 들고 인사하러 간 교섭위원들은 에스제이엠 조합원들의 여유롭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서 힘을 받았다. 교섭위원들은 "단결하는 노동자는 패배하지 않는다"는 구호를 외치며 현장순회를 마쳤다.

◁ 하이디스지회가 6.7(수)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 신발던지기 퍼포먼스로 손해배상 선고받은 350만원 짜리 운동화 꺼내신고, 신발끈 단디 묶고, 기술먹튀 방지·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투쟁에 나섰다. 12일 지부 운영위에서 지부 전체의 지원과 결합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조의향기 9기 7호 2017.6.8(목) 발행인 정규전

환영! 새식구

탄생! 현대모비스화성지회

지난 5월 29일(월) 지부 64차 운영위원회에서 '현대모비스화성지회'가 지부 새식구로 편제됐다. 현대모비스화성지회는 화성에 있는 현대모비스 이화공장 내 7개 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뭉쳐 가입한 신생노조다. 현대모비스 이화공장은 기아차 화성공장에 자동차 핵심모듈(샤시, 컴플릿샤시, 콕핏)을 직서열로 납품하는 공장이다. 7개 업체들은 각각 이화모듈, 하나모듈이라는 중간관리업체 소속으로 5개, 2개 업체로 나뉘어 있다.

노조 설립 움직임을 눈치 챈 회사의 방해작전에 총회 계획을 훨씬 앞당겼지만, 5.27(토) 설립총회에 100여 명이 참가했고, 29일(월) 노조 설립을 알리자마자 사흘 만에 400명을 넘겨 약 80%가 가입했다.

7개 업체 모두 교섭대표노조 확정

△ 7개 업체 주간조 조합원들이 한 곳에 모여 진행한 합동조회

노동조합 만들자마자 회사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던 조회를 없애고 당당하게 노동조합의 조회를 열었다. 교육 안 받고 싸인만 하던 산업안전교육, 연차휴가 강제 소진, 욕설과 막말, 가혹행위 등이 없어지며 현장이 바뀌고 있다. "단결하는 노동자는 패배하지 않는다"는 구호가 현장에 아침 저녁으로 울려퍼진다.

회사는 업체폐업, 계약해지, 공장이전 시나리오 등 여러 협박을 동원했지만 압도적인 가입 흐름에 복수노조를 만드는 대응은 못했다. 6월 6일 단체교섭참여 노동조합 확정공고에서 금속노조가 모든 업체에서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획득했다.

단결불패 이루자

현대모비스 측은 노조설립 저지, 복수노조 대응 등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 하지만 교섭관련 일정을 하루씩 차이 나게 공고하거나, 내용을 소속 중간관리업체 간에 다르게 공지하는 등 차이의 틈을 노려 분열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대기아차그룹과 현대모비스라는 강한 상대, 7개 업체로 나뉜 조건, 그 위에 또 2개의 중간관리업체, 업체마다 세세하게 다른 노동조건, 오랫동안 다른 회사 사람으로 지내 온 단절된 관계 등 회사가 파고들 차이들이 많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것인지, 어떻게 공격해올 것인지를 예측하며 단결불패를 이뤄가야 한다.

지회는 대의원 선출, 상집간부 인선 등 조직체계를 갖추며 교섭과 현장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5월 31일 주야간조 조합원 교육을 진행했고, 업체별 총회 등 조직 뼈대 구성을 마무리한 후 6월 말에는 전체 조합원 단합대회를 열 계획이다.

힘찬 다음 걸음을!

5일(월) 지부 운영위원회에 지회 간부들이 인사하러 왔다. 운영위원들도 사업장 소개와 응원의 말을 전했다. 새식구의 기운 듬뿍 받아 뒤풀이도 신났다. 운영위원들은 **"단결불패 전통이 살아있는 경기지부에 온 걸 환영한다. 필요할 땐 몰빵하겠다. 승리하는 날까지 힘이 되겠다"**며 지부의 기풍이 고스란히 이어지고 확산되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금속노조는 다음 주 중 교섭 상견례를 요청했다. 현대모비스화성지회가 압도적 기세와 화끈한 응원의 기운을 안고 힘차게 다음 걸음을 내딛기를 바란다.